



조선대 출신 서진선 작가 5·18 그림책 '오늘은 5월 18일' 폐내



"준택이가 생일선물로 받은 장난감 총이 부러웠다. 나도 총을 사달라고 졸라보지만 엄마는 사줄 리 없다.(중략) 누나가 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누나가 참 좋다.(5월18일 일요일)"

"선생님이 수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집으로 가라고 했다.(중략) 성당에 모여 총놀이를 한다.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에 왔다. 나는 진짜 총을 봤다. (5월19일 월요일)"

80년 5월 당시 여고생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겪었던 동화작가가 33년 전 아픈 기억을 더듬는 그림책 '오늘은 5월 18일'(보람)을 폐냈다.

동화작가 서진선(여·50)씨는 초등 학생의 눈을 통해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이야기다.

자신에게 무엇이든 해줬던 누나를 잃은 한 초등생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아픔을 그려냈다. 누나의 관 앞에서 누나를 기다리는 초등생의 모습에서는 눈시울이 불거진다. 그림책이지만 작가의 기억이 투영돼 초등생의 이야기가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

주로 삽화를 그려온 작가가 처음으로 기획하고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한 작품이기도 하다.

서진선은 12일 인터뷰에서 "80년 5월

처음으로 죽음과 가족들의 슬픔을 목격했다"며 "당시에는 물랐지만 그 기억들은 평생 아픔과 상처였고,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유치원때 광주로 이사온 서진선은 당시 전남대사대부고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1980년 5월19일, 선생님이 앞뒤 상황설명도 없이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남동에 있는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버스는 외곽지역으로 돌았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버스를 세우더니 보따리를 든 대학생을 끌어내렸어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죠."

학교에 갑자기 휴교령이 내려졌고, 부모님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서진선은 미대 진학을 위해 도청 인

근에 있는 회실을 오갔다. 그리고 그날 회실에 다녀오면서 상무관에서 수많은 관 속에 있는 주검을 보게 된다. 그가 상무관에서 봤던 관과 영정사진은 이번 작품에서 초등학생의 시선을 통해 그려진다.

"무서워어요.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또렷 합니다. 수많은 관과 영정 사진이 놓여있었습니다. 그중에 유독 작은 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와 같은 여고생이나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서진선은 조선대 미대를 졸업하고 잡지와 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려왔다. 창비아동문과 대표동화 세트에서는 아동문학과 고(故) 권경생 선생 작품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가 갑작스럽게 3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야기를 깨닫는 이유는 뭘까. 더구나 5·18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2년 전 일러스트 학교 졸업작품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작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더라고요. 예전 일기장을 더듬다가 보니 갑자기 5·18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책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 그렸던 작품들에 최근 글을 썼어요. 근데 주위에서는 어린 이를 수준에 맞지 않아서 만류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5·18의 거창한 역사적 의의나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당시 한 가족이 겪었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주인공이 누나에게 선물 받은 장난감 총은 누나를 죽여 하는 도구가 됐고, 그를 통해서 최근 아이들이 너무 쉽게 가지고 노는 총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번 책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그 아픔을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안을 받으니까요. 박물관에 가야지만 총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서진선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자 다음 작품에서 6·25 전쟁 이후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고생 때 겪은 5·18

33년 전 아픈 기억 더듬어

초등학생의 눈으로

다시 이야기

하고 싶었다.

"이번 책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그 아픔을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안을 받으니까요. 박물관에 가야지만 총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서진선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자 다음 작품에서 6·25 전쟁 이후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젊은 연주자들의 젊은 클래식

31일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공연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최근 몇년 사이 클래식 음악계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젊은 연주자들의 악진이다. 이들은 세계 정상급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양상은 그룹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가 광주대에서 선다. 3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유·스퀘어문화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등이 출연해 피아노 솔로, 바이올린 듀오, 피아노 4중주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2007년 창단된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는 금호영재, 영아티스트 및 금호라이징스타 무대에 섰던 연주자들로 이뤄져 있다.

현재 가장 '핫'한 연주자로 꼽히는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을 거머쥐며 세계 음악계에 존재를 각인시켰다.

바이올리ニ스트 권혁주는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 암풀스카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은 2009년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2위에 올랐다.

또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독일 크루네르크 아카데미에서 수학 중인 비올리스트 이한나, 16세 때 묵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첼리스트 이상은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연주 레퍼토리는 '사무엘 바비의 피아노 소나타 e단조', 샤를 드 베리오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제1번 g단조',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를 연주한다.

티켓 가격 3만3000원, www.usquareculture.co.kr.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피아노 중고등부·실용음악 입상자

피아노 중·고등부	19 홍수빈(하당 1) 26 이은재(상일 2)	27 임현준(조대부속 2) 29 김민경(회순 2)	64 김시형(운립 3) 65 박은민(동광양 3) ▲ 동상	4 이해린(전남예술 2) 25 김설아(전남예술 2) ▲ 은상	45 김주안(여수 1) 47 박선영(운남 2) 49 정은지(광주여자 2)	63 오지혜(광주수피아여자 3) 72 김한솔(정광 3) 73 김채연(부영여자 3)	▲ 금상 4 이한길(상무 3) ▲ 은상	3 신승재(광주송원 5) ▲ 은상	1 변정훈(광주공업 1) △ 드럼 초등부
〈심사위원〉	▲ 은상	◇ 중등부 3학년	55 최우석(순천여수 3) 58 이승연(익산원광여 3)	12 윤우정(동신여자 2) 16 정시은(국제 1)	◇ 고등부 3학년	76 하은수(순천강남여 3)	▲ 동상	1 강승연(광주송원 5) ▲ 은상	3 한상규(광주송원 6) ▲ 은상
김혜경(조선대 교수)	23 이소민(광주화정 1)	25 김재나(전주예술 1)	▲ 최고상	20 박세린(영암남주 2)	▲ 금상	2 리영훈(순천효천 3)	2 리영훈(순천효천 3) 2 유동민(광주송원 5)	3 서준원(조대부속 3) △ 재즈 기타 고등부	1 유상숙(광주송원 5) △ 드럼 중등부
박행숙(목포대 교수)	25 김예나(전주예술 1)	32 박승리(전주예술 1)	▲ 금상	23 최수인(전주예술 1)	71 장유빈(순천동신여 3)	71 장유정(광주예술 3)	3 서준원(조대부속 3) △ 재즈 기타 고등부	2 이충현(신창 5) 2 김동준(성덕 2)	2 이충현(신창 5) ▲ 은상
구재학(호신대 교수)	34 심세희(봉산 1)	49 김은선(운남 3)	▲ 동상	72 장다은(광주 3)	▲ 동상	53 이진철(전주한일 3)	4학년	4 김준성(성덕 2) 4 신가은(광주송원 4)	1 김노아(전대사대부속 1) △ 드럼 고등부
문현옥(전남대 교수)	34 심세희(봉산 1)	50 류정인(광주중앙 3)	▲ 고등부 1, 2학년	73 배지현(동아여자 3)	3 이지혜(광양중마 1)	57 박예은(송원여자 3)	58 김민후(광명 3)	4 신가은(광주송원 4) △ 동상	1 김준성(성덕 2) 1 황의석(성덕 2)
조성경(남부대 교수)	33 서지혜(광양백운 1)	52 류정인(광주중앙 3)	▲ 고등부 1, 2학년	11 최정선(광주예술 2)	15 김승범(광주동성 2)	80 양혜영(순천강남여 3)	△ 보컬 초등부 3, 4학년	1 유현숙(광주송원 3) △ 클래식 기타 초등부 3,	1 김준성(성덕 2) 1 황의석(성덕 2)
◇ 중등부 1, 2학년	12 조유화(화순제일 2)	▲ 은상	▲ 고등부 1, 2학년	32 주가현(전남예술 2)	19 김민주(전주예술 2)	88 김민주(광주 3)	6학년	1 윤상희(영산성지 3) △ 흑자 피아노 중등부	1 김효정(광주동명 3) ▲ 은상
▲ 최고상	17 황상희(전남 1)	18 문은비(운리 2)	▲ 최고상	34 권혜민(광주예술 2)	34 권혜민(광주예술 2)	54 박미솔(문정여자 3)	▲ 흑자 피아노 중등부	1 윤상희(영산성지 3) △ 흑자 피아노 중등부	1 김효정(광주동명 3) ▲ 은상
31 고은우(우산 2)	20 조민주(송정 2)	59 김주상(상일 3)	▲ 금상	41 조상희(광주예술 2)	55 고지원(광주예술 3)	55 고지원(광주예술 3)	1 임수빈(살레시오 3)	1 윤상희(영산성지 3) △ 흑자 피아노 중등부	1 김효정(광주동명 3) ▲ 은상
▲ 금상	16 이다연(고흥녹동 2)	21 김정우(경신 2)	2 박소답(광주예술 2)	44 백소미(전남여자 2)	62 황현정(종마 3)	62 황현정(종마 3)	△ 보컬 고등부	1 윤상희(영산성지 3) △ 흑자 피아노 중등부	1 김효정(광주동명 3) ▲ 은상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 매
공 매
압 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경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 매매전문

★전대문 1분 룸 14개 월수익 500만원 매기6억2천
★전대상대. 농대 1분 룸 14개(상가1개) 월수익 500
매기6억2천

★전대문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기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보5천 융 2억5)

★전대문 1분 룸 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
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기8억2천(보5천
융 2억5천)

★상촌동 신축원투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기5억9천
★상촌동 원투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기6억9천

쌍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접
820㎡ 매기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원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교로·방월·독서실·모든업종가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기3억6천(보3천 월140만)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기3억3천(보3천 월180)

독서실 금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웹 APT후문
2층 91㎡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3시기금있음

상담 문의 062)527-7600
H.P. 010-6670-9800</p